

#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 분석<sup>1)</sup>

The Determinants of Youth Reemployment

임완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패널(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미취업 탈출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또는 실직 경험자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의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 1. 들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경제 충격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맞물려 청년 실업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

년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취업 및 실업 관련 프로그램들의 정책 효과 중에서 청년층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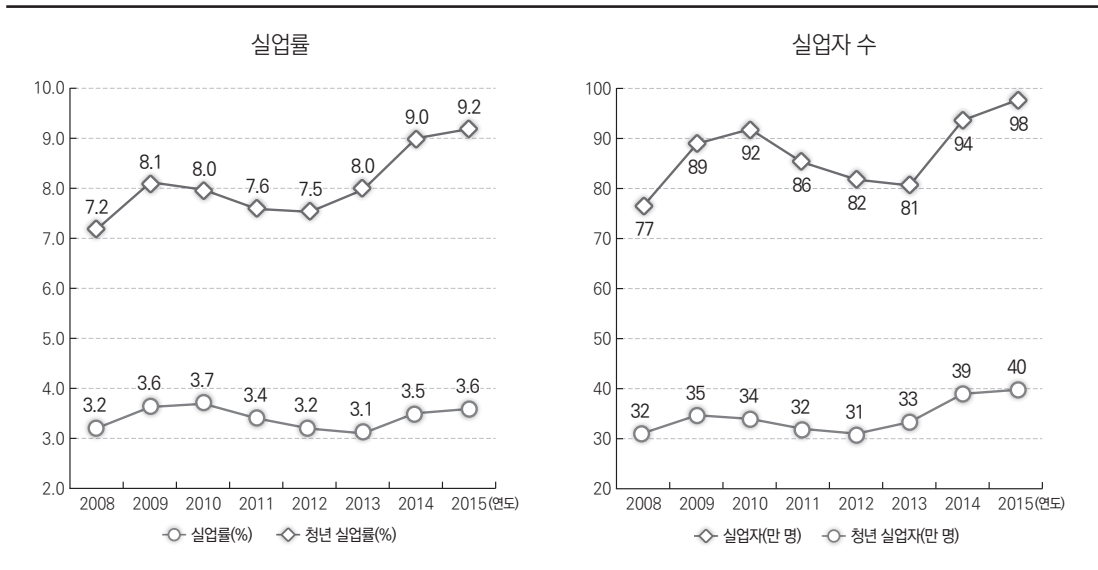
1) 본 원고는 김현경, 노대명 등(2016). 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 "한국 청년층 취업 관련 지원 정책 효과 추정" 내용을 발췌 및 대폭 보완한 연구임.

고자 한다. 재취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취업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 상태가 된 청년들이 미취업 기간이 지속될수록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청년 니트(NEET) 또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직을 경험하거나 경험 중인 청년들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책

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이용과 직장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 등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대상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제도가 청년층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 고자 한다.

그림 1.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2008~2015년



주: 청년의 연령 기준은 15~29세.  
 자료: e-나라지표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http://www.index.go.kr>

## 2. 주요 선행연구

청년의 미취업 기간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이현성(2010)<sup>2)</sup>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자가 첫 직장에 채용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영향을 콕스비례해저드(Cox Proportional

2) 이현성(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pp.47-84.

Hazard)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은 첫 직장 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가구 소득은 첫 직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 사교육 경험, 자격증, 직업훈련 경험 역시 첫 직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김태운, 민인식(2015)<sup>3)</sup>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이산시간해저드(Multinomial discrete-time hazard)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격증이 없는 경우 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성효용, 김민경(2003)<sup>4)</sup>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미취업 탈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비정규직 둘 다에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은 구직 2개월 시점에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여성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위 연구는 정부의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분석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엄현택, 이창원(2010)<sup>5)</sup>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재취업률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실업 탈출률이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실업 뒤 18~22개월 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업 탈출이 실업급여 종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윤정향, 이시균(2010)<sup>6)</sup>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실업급여가 재취업 및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급여 수급 일수와 수준 그리고 실직 전 소득대체율은 재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과 재취업 결정 요인이 유사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재취업 결정 요인을 파악한 홍성표, 정진철(2015)<sup>7)</sup>의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고

3) 김태운, 민인식(2015).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6권 2015, pp.195-222.

4) 성효용, 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pp.117-148.

5) 엄현택, 이창원(2010). 실업급여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수급기간과 지급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1), pp.341-363.

6) 윤정향, 이시균(2010).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6(2), pp.145-171.

7) 홍성표, 정진철(2015). 자격취득이 장애인 재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015. Vol.25, NO 3, pp.169-196.

용패널 1~5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기술자격, 기타 국가자격, 국제자격 등의 자격 취득 여부가 장애인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에서 언급한 자격들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더 많았으며 구직 기간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재취업할 가능성이 약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 경험은 재취업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서비스 경험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자료 및 방법

#### 가. 분석 자료

청년층 재취업 및 미취업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대상자들의 실직 시점, 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 시점 등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와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형의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가구원 수 같은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주요 정보와 함께 학력, 자격증, 해외 연수 등의 인적 자원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효과를 살펴볼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 공공취업알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청년층의 실업 또는 미취업 기간, 재취업 시점, 고용 형태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고용보험 행정 DB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의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층의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 및 실업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th Panel, YP) 조사를 꼽을 수 있다. 청년패널은 크게 YP2001과 YP2007로 구분할 수 있다. YP2001은 2001년 기준 만 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개인 단위의 종단면조사로서,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6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YP2007은 조사 차수 증가에 따른 저연령대 청년의 감소를 보완하고 최근 상황을 반영한 청년 노동시장 및 학생생활의 대표 통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 기준으로 15~29세 청년 표본을 새롭게 구성하여 2차 프로젝트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본 연구는 YP2007의 8차(2014년) 자료를 중심으로 YP2007 1~7차 자료 중 필요한 변수를 결합해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난 조사 당시 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현재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8) 청년패널 홈페이지 참조(<http://survey/keis.or.kr/yp>).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들을 재취업 결정 요인 분석의 대상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아래 표는 청년패널상 실업자와 재취업자의 구직 기간 및 미취업 기간<sup>9)</sup>의 평균을 보여 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재취업자의 미취업 기간 평균은 2.5개월이며 실업자의 구직 기간은 평균 7.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중 이전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재취업한(미취업 기간이 0개월) 사람들에 대해 고용 상태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재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은 3.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취업 기간에 대한 분석은 재취업이 이뤄진 경우를 사건이 발생한 이벤트로, 아직 미취업 상태인 경우를 우측중도절단(right censored)된 자료로 정의하였다. 한편, 반복하여 재취업과 실업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재취업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성과변수인 미취업

**표 1. 실업자와 재취업자의 학력별 구직 및 미취업 기간**

(단위: 개월)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실업자 (n=239)	구직 기간	5.3	7.1	10.2	7.8
재취업자 (n=473)	미취업 기간 (1개월 미만 제외)	3.0 (3.9)	2.5 (3.4)	2.3 (3.0)	2.5 (3.4)

주: 1개월 미만 제외의 경우 n(분석대상)은 358case임.  
자료: 청년패널 YP2007 제8차 자료(2014)를 이용해 분석함.

기간의 경우 분석 대상의 재취업 발생 시 재취업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둔 시점을 뺀 기간을 월 단위로 파악하였다. 한편, 분석 대상 중 미취업자의 경우 2014년 조사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둔 시점을 뺀 기간을 월 단위로 파악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는 개인 특성, 가구 및 지역 특성, 인적 자본, 이전 고용 형태 및 정부 정책 관련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자의 취업

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공공취업알선, 직장체험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sup>10)</sup> 그리고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고, 다음과 같이 해당 변수들의 값을 더미(Dummy)화해 정의하였다.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지금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1'로 기재하였으며, 공공취업알선의 경우 주된 구직 정보 경로가 공공취업알선이라고 응답한 것을 '1'로 기재하였다. 한편, YP2007은 실업급여에 대

9) 재취업자의 경우 구직 기간이 아닌 미취업 기간으로 표기한 이유는 실업자와 달리 재취업자는 실직 또는 퇴직 후 비경황 기간과 실업 기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임.

10)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한 조사를 2014년부터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014년 조사를 기준으로 이전 조사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만

‘1’로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이거나 수급을 경험한 가구에 속하면 ‘1’로 기재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설명**

종속변수	durm1	미취업 기간
개인 특성	sex1	성별: 남성=1, 여성=0
	age1	연령
	age2	연령 제곱
구 및 지역 특성	y07g407	2013년 가구원 수
	marry1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y08g501	자녀 수
	reg	거주 지역: 1 서울, 2 광역시, 3 도
	reg1	서울(도 기준)
	reg2	광역시(도 기준)
전년도 고용 특성	jtype07	전년도 종사상지위
	jcontr	전년도 고용 형태: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자영업자 및 고용주 등
	jcontr1	정규직(비정규직 기준)
	jcontr2	자영업자 및 고용주 등(비정규직 기준)
인적 자본	edu0	학력 구분: 1 고졸, 2 전문대 졸, 3 대졸 이상
	edu1	전문대 졸(고졸 기준)
	edu2	대졸 이상(고졸 기준)
	licet	취업용으로 취득한 자격증 보유 여부
	abtrain1	해외 연수 여부
	jobtr1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경험 여부
	bene_un	실직 및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 지원 정책 수혜 여부	jcenter	구직의 주된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 이용 여부
	jobexp1	직장체험프로그램 <sup>11)</sup> 참여 및 경험 여부
	nbls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경험 여부

**나.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 분석의 하나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공공취업알선, 직

업교육훈련,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등이 미취업 탈출 및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생존분석은 일정 기

11)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에게 직장 탐색, 현장 경험, 진로 선택의 기회를 직장 체험을 통해 제공하는 청년연수 지원제도를 지칭함(청년패널 2007 1~8차 조사 통합 설문지, pp.142).



간 동안 사건이 일어난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우측절단) 모두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분석 자료에 우측절단이 있는 자료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탈출 또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콕스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콕스비례해저드 모형은 종속변수가 되는 생존 기간이 특정한 분포와 무관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모델이다. 콕스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sup>12)</sup>

$$h_i(t) = h_0(t) e^{(b_1x_1 + b_2x_2 + \dots + b_nx_n)}, i = 1, 2, \dots, n$$

$h_i(t)$ 는 공변량  $x_i$ 를 가진 대상의 관찰 시간  $t$ 에서의 해저드 함수를 의미하며  $h_0(t)$ 은 공변량과 독립적인 관찰 시간  $t$ 에서의 기저해저드(base line func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간 의존에 대한 가정이 없는 비례해저드 모형에서 해저드의 변화는 기저해저드를 통해 결정되며, 공변량  $x_i$ 는 단순히 기저해저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한편, 해저드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미취업 기간이라고 하면 이는 미취업 상태의 탈출 확률을 의미하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상태에서의 탈출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분석 결과

청년의 재취업(미취업 탈출) 결정 요인을 살펴

보기에 앞서 지난 조사 당시 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현재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인 퇴직(실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주요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별 미취업 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전체 퇴직(실직) 경험자의 미취업 기간은 평균 4.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공공취업알선기관 이용과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업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시 미취업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실직) 경험자 중 재취업자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을 때 미취업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이 있으면 미취업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퇴직(실직) 경험자와

12) 콕스비례해저드 모형에 대한 설명은 송경일, 안재역(2001), 생존분석, SPSS 아카데미를 인용 및 수정한 것임.

표 3. 주요 프로그램 참여 및 경험 여부와 평균 미취업 기간

(단위: 개월, %)

종류	구분	퇴직(실직) 경험자(n=835)	재취업자(n=473)
공공취업알선기관 (주된 구직 정보 여부)	없음	4.5 (96.1)	2.6 (93.8)
	있음	2.6 (3.9)	2.0 (6.2)
직업교육훈련 경험	없음	4.4 (84.2)	2.6 (86.3)
	있음	4.8 (15.8)	2.3 (13.7)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	없음	4.5 (93.7)	2.5 (93.1)
	있음	4.2 (6.3)	2.6 (6.9)
실업급여 수급 여부	없음	4.2 (89.8)	2.4 (94.3)
	있음	6.6 (10.2)	4.7 (5.7)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없음	4.4 (98.9)	2.5 (99.2)
	있음	5.6 (1.1)	4.4 (0.8)
합계		4.4	2.5

자료: 청년패널 YP2007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재취업자 모두 미취업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의 취약계층에게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 표는 청년패널 조사에서 가구 소득이 조사된 대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보여 준다. 빈곤 여부와 관련해서는 통계청 소

득분배지표의 균등화된 시장 중위소득 50%를 청년패널에서 조사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의 합을 균등화해 만든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빈곤율을 도출하였다.

폭스비레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지난 조사 당시 취업 상태였지만 현재(2014년 조사 시점

표 4. 실업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단위: %)

구분	전체	퇴직(실직) 경험자	실업급여 수급자
빈곤율(실업급여 제외)	4.1	7.4	17.3
빈곤율(실업급여 포함)	4.0	6.9	11.6
빈곤 감소 효과	1.7	7.4	33.0

자료: 청년패널 YP2007 제8차 자료(2014)를 이용해 분석함.



기준)는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미취업 상태인 대상을 통해 청년의 재취업 및 미취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모형은 분석 대상 중 퇴직 사유가 학업, 건강상의 이유, 육아 및 가사로 응답 경우까지를 포함한 모형 I과 이들을 제외한 모형 II로 분류된다. 즉, 퇴직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대상까지 포함한 경우(모형 I)와 그렇지 않은 경우(모형 II)를 구분해 분석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미취업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측정했는데, 해당 기간이 0개월로 측정된 대상은 취업 상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실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경우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sup>13)</sup>

주요 분석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모형 I에서는 성별이 남성인 경우,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고등학교 졸업 대비)인 경우, 이전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인 경우,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취업 기간에 부(-)의 영향을 미쳐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전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대비 자영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성별이 남성인 경우, 거주 지역이 광역시인 경우('도' 거주 기준),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인 경우,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

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대비 자영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낮추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는 혼인 상태를 제외하고 모형 I과 부호의 방향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재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 II는 부호의 방향도 반대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패널(2014)을 통해 분석 대상의 퇴직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 및 가사가 약 13%를 차지한다. 육아 및 가사라고 응답한 사람 모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형 II 분석에서 제외되면서 혼인 상태 계수 부호의 방향 및 통계적 유의성이 변화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모형 I과 II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나타낸 변수는 성별, 이전 고용 형태, 공공취업알선 이용 여부,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공공취업알선 이용과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은 퇴직(실직) 경험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13) 본고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미취업 기간이 0개월인 경우도 포함해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정계수의 방향성은 본고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타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의 경우 청년패널에서 조사된 수급 경험자의 수가 다른 정책변수의 수급 및 수급 경험에 비해 매우 적어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분석상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표 5. 청년 재취업(미취업 탈출) 결정 요인 분석: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대상(퇴직 사유)		I: 모든 퇴직 사유			II: 퇴직으로 비경활자가 된 경우 제외		
종속변수: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		추정계수(B)	Robust S.E	Exp(B)	추정계수(B)	Robust S.E	Exp(B)
성별(남성=1)		0.451***	0.110	1.570	0.336***	0.119	1.399
연령		-0.229	0.229	0.796	-0.216	0.247	0.806
연령*연령		0.005	0.004	1.005	0.004	0.004	1.004
전년도 가구원 수		0.058	0.042	1.060	0.038	0.048	1.039
혼인 상태(유배우=1)		-0.531***	0.147	0.588	0.097	0.164	1.102
거주 지역	서울(도 기준)	0.086	0.131	1.089	0.127	0.149	1.135
	광역시(도 기준)	0.159	0.118	1.173	0.251**	0.129	1.285
교육 수준	전문대 졸(고졸 기준)	0.289**	0.142	1.335	0.198	0.156	1.219
	대졸 이상(고졸 기준)	0.236	0.153	1.266	0.149	0.162	1.161
자격증 보유 여부(있음=1)		0.039	0.102	1.039	0.061	0.116	1.063
해외 연수 여부(있음=1)		-0.200	0.178	0.819	-0.167	0.196	0.847
이전 고용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기준)	0.292**	0.128	1.340	0.229*	0.137	1.257
	자영자·고용주(비정규직 기준)	-0.451*	0.253	0.637	-0.535**	0.280	0.586
공공취업알선 이용(있음=1)		0.592***	0.157	1.808	0.364**	0.248	1.439
직업교육훈련 경험(있음=1)		-0.145	0.139	0.865	-0.193	0.159	0.825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있음=1)		0.350*	0.179	1.419	0.387**	0.205	1.472
실업급여 수급 여부(있음=1)		-0.737***	0.191	0.479	-0.809***	0.223	0.44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여부(있음=1)		-0.401	0.449	0.669	-0.488	0.514	0.614
관측치		677			524		
Log pseudolikelihood		-2028.4383			-1872.0742		

주: 통계적 유의성 < 1%, < 5%, < 10%는 각각 \*, \*\*, \*\*\*로 표기.  
 자료: 청년패널 YP2007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5. 나가며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분석 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정보 습득과 부분적이거나 현장 경험을 등

시에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직접적인 취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패널(20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취업과의 미연계'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7.5%), 그다음으로 장시간 근무(34.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14)</sup> 한편,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정책 변수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변수를 제외하고는 실직(퇴직) 경험자의 참여 및 경험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취업 기간에 대한 위험률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퇴직)자의 대부분이 학교를 통한 구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취업 관련 구직 정보의 통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과 같은 공공 부문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취업 탈출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패널에서 실업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엄현택, 이창원(2010)이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업 탈출률이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시기인 실업 뒤 18~22개월 후에 가장 높은 것을 보았을 때 분석 기간이 확장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패널 자료가 축적되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시장소득 적용(중위 50% 기준)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 보면, 실업급여 수급은 시장소득을 구성할 수 있는 응답자의 빈곤율을 1.7%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빈곤율을 약 33% 감소시켜 실

업급여의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15)</sup>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에서 자격이 제한되고 취약성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up>16)</sup>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선행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실업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만, 퇴직(실직) 경험자들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업 기간이 길었지만 이들 중 재취업자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미취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의 보충성과 반복 수급 경향으로 인해 분석 대상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수급자의 규모가 분석 대상의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대상 확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

14) 신종각, 황광훈, 조민수, 박재호(2015). 청년패널 2007 8차(2014)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p.142.

15) 하지만 2014년 청년패널 자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84케이스이며, 청년패널조사에서 시장소득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분석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60케이스에 불과한 것은 분석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음.

16) 강신욱 등(2015).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7.